

# “민주당 적통” 강조...연쇄 단일화 신호탄 ‘주목’

정세균·이광재 단일화 시너지 효과는

“연륜+정책...국정운영 필승카드”

정, 지지율 반전·추가 연대 기대

예비경선서 추가 단일화 나올 수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의 단일화는 '민주당의 정통성을 잇는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후보 연대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8명의 주자가 겨루는 이번 예비경선 과정에서 추가 단일화가 구체화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역에서는 정 전 총리와 이 의원 간의 후보 단일화가 얼마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5일 정가에 따르면, 이번 단일화와 관련해 '민주당의 적통'을 강조한 단일화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민주당을 지켜온 두 후보가 손을 잡으면서 이 지사를 견제하고 차별화에 나섰다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세균 캠프는 "정세균과 이광재의 결합은 '노무현 정신'의 결집이고 미래경제의 출발이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노 전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을 맺었다는 점에서 '민주당을 지킨 사람'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인연이 깊은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아 진문 중심의 반(反)이재명 전선 구축에 나선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캠프 관계자는 "정세균 후보와 이광재 후보의 단일화는 각각 'K-방역'과 'K-뉴딜'의 결합으로 'K-경제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의미이며, '경제 대통령'이 본선과 국정운영의 필승카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후보단일화 선언 후 지난 3일 나란히

광주를 방문해 민주당 적통으로서 힘을 합쳐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 국민이 편안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특히 정 전 총리는 대통령 후보 조건으로 적통성과 유능함, 도덕성을 꼽으며 자신의 연륜과 능력으로 지지를 호소했으며, 이 의원은 다양한 공약과 정책으로 시민과 당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정 전 총리 측은 이번 단일화로 지지를 받전의 계기를 만들고, 다른 후보들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리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정 전 총리의 높은 인지도와 조직력 그리고 풍부한 연륜에, 이 의원의 다양하고 현실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정책이 결합한다면 많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양측의 주장이다.

이들 후보는 이날 한 목소리로 안정감 있는 정권 재창출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한 번 더 국가를 경영해야 복지가, 평화가 더 강해지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대통령은 연승할 시간이 없다. 안정 속에서 개혁이 지속돼야 대한민국이 미래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오늘의 '필승 연대'는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계승, 4기 민주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미래 경제 창달을 위한 혁신 연대"라며 "안정적인 대선 승리로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정책 공조는 물론 혁신 통합의 정치 창출을 위해 하나 될 것이며, 우리 두 사람의 하나된 힘과 지지자의 염원을 담아 세계에서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강한 대한민국을 꼭 실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달 28일 후보 단일화를 전격 선언하고 공동 정책 행보를 이어왔다. 이들은 여론조사 등을 참고해 후보 간 정치적 합의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그동안 컷오프(예비경선·11일 결과 발표)를 앞둔 5일 단일화 한다는 시간표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오광록 기자 kroh@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5일 비대면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낙연 대선출마 선언...“중산층 70% 시대 열겠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슬로건

중산층 경제 등 5가지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5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이낙연TV'를 통해 "중산층 경제를 만들겠다. 중산층을 70%로 늘리겠다"며 "10년 전 65%였던 중산층이 지금 57%로 줄었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사회가 위기에 강해진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슬로건 아래 ▲중산층 경제 ▲신복지 ▲헌법 개정 ▲연성

강국 신뢰외 ▲문화강국 등 5가지 국가 비전을 미래 대한민국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는 김대중 정부 이래 복지를 본격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국민이 계신다"며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이 신복지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 청년 3명 중 1명이 자욱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 산다. 우선 자욱고부터 없애겠다"며 "2030년까지는 모든 국민이 지금의 중산층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금수저, 흙수저가 세습되지 않아야 한다"며 "일자리와 세제, 복지가 계층이동을 더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며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추진하도록 헌법에 근거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에 생명권·안전권·주거권을 신설하고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해 부자들이 불로소득을 독점하지 못하게 막겠다"면서 "땅에서 얻은 이익을 나눠 사회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무력과 영토보다 경제와 문화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세계는 연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면서 "대한민국은 연성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연성강국 신뢰외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대선 적합도, 윤석열 31.4%·이재명 30.3%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윤 전 총장 사퇴후 최소 격차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31.4%)은 이 지사(30.3%)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12.2%),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3.9%),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3.9%), 최재형 전 감사원장(3.2%),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3.1%), 정세균 전 국무총리(2.6%) 순이었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격차는 1.1% 포인트로,

이 기관의 조사를 기준으로 윤 전 총장이 지난 3월 초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이래 최소 격차다. 검찰총장 사퇴 직후인 지난 3월 5일 실시된 조사에서 윤 전 총장(32.4%)과 이 지사(24.1%)의 격차는 8.3% 포인트였다.

윤 전 총장은 전주 대비 1.0% 포인트 떨어졌는데 특히 대구·경북(9.3% 포인트 ↓), 광주·전라(6.8% 포인트 ↓)와 중도층(6.8% 포인트 ↓)에서 하락 폭이 컸다.

이 지사는 전주 대비 1.9% 포인트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5.8% 포인트 ↑), 광주·전라(4.2% 포인트 ↑)와 블루칼라 층(10.9% 포인트 ↑)에서 많이 올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이재명 후원회장에 강금실...‘친노 끌어안기’?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후원회장으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최종 선정하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날 오전까지 논의를 거친 결과 강 전 장관으로 (후원회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이었던 강 전 장관은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도 지내 친노 인사들과 인연이 깊다고 알려졌다. 강 전 장관 '영입' 결정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여론 유력 대선주자인 이 지사가 당내 외연 확장 차원에서 '친노 지지층 끌어안기'에 나선 차원으로 깔려 있다는 해

석이나 나온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강 전 장관은 여성 첫 법무 장관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로서는 여성과 환경 분야를 두루 담당한다는 점과 함께 참여정부 출신 인사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전 장관은 지난달 구성된 경기도의 기후대응·산업전환 특별위원회에서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과 함께 공동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 개원 19주년!!

2021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상장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